

'4명 사상'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개시

광주고법, 발생 15년만 내일 첫 공판 기일 개최 부녀, 무기징역·징역 20년... '위법 수사' 등 쟁점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4명이 죽거나 다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발생 15년만에 개시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의의영 고법판사)는 오는 3일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확정받은 A(74)씨와 그의 딸 B(40)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7월6일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고 2명이 죽고 2명이 다친 사건의 공동 피의자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들의 아내이자 엄마였다.

피의자 특정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졌다. 최초로 수사를 맡았던 순천경찰은 피해자들이 마신 막걸리가 담겨

있던 병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누가 넣었는지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B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추궁해 "아버지와 함께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당에 뒤어머니가 마시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부녀가 이를 들켜자 아내이자 엄마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기 때문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와 피의자

의 자백에 대해 1·2심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와 막걸리의 구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광주고법은 이들이 자백을 반복하긴 했으나 주요 내용은 일치한 점 등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3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녀는 형을 확정받아 각기 다른 교도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는 데 썼던 손가락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판결 확정에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해당 부녀도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오다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확정판결 후 10년 만인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청구 당시 박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들을 회유, 압박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하며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은 검찰의 위법 수사가 인정

된다고 판단하며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법 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개시 결정 절차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이 열리게 됐다.

때문에 이번 재심에서는 청구 과정에서 언급된 검찰의 위법 수사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무죄에 대한 증거 능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A씨와 B씨는 재심 결정 당시 형 집행 정지도 받아 자유인 신분으로 재판 받는다.

/안재영 기자



성탄트리 만들어요. 지난날 30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1층에서 열린 '크리에이티브 & 크래프트데이'에 참여한 가족단위 시민들이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있다. /김애리 기자

회삿돈 횡령 걸리자 사장 살해한 직원 '징역 25년'

회삿돈을 훔쳤다가 들들나 이를 갚아나간 직원이 또다시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께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뒤에서 덮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사장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월 2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돼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3주 전부터 교도소 수감 후기와 살인 범죄 등을 인터넷 검색해 찾아보고 범행 후

에는 CCTV 저장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피해자 휴대전화 등을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알리바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고 정황을 꾸미기 위해 하루 동안 B씨 시신을 숨겼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과 절도·범행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은폐 후 귀가한 후 다음 날 태연하게 사고를 위장해 신고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사촌 여동생 성추행한 오빠 법정구속

광주지법, 징역 3년 선고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해 나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별법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사촌 여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거리가 3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추행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동석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정황과도 일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와 증인을 한 사촌 동생을 나무라는 등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법정에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

'조건만남 미끼' 집단폭행·금품강취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집단폭행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10대 청소년 2명에 대해 장기 3년6개월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청소년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40대 피해자를 유인, 상가 건물 3층에서 각 목으로 때리며 폭행을 가해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재영 기자

광주 한 중학교 운동부 상습폭력 의혹

2학년 학부모 "선배들이 지속 폭행" 신고

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선배들이 사에서 상습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중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운동부 2학년 A군이 같은 운동부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운동부 선배들은 중학교를 졸업해 고등학교로 진학했으며, A군 측은 이들이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기 뺨을 맞고 발길질당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해당 고등학교와 시교육청에 즉시 알리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 학교 운동부에서는 최근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폭행의 정도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며 "교육청 등과 협의해 조사,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대이 기자

신안 선원 3명 바다 추락...2명 숨져

신안군 임자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3명이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사망했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3분께 신안군 임자도 북방 4km 해상에서 근해 자망어선 A(16t)호 선원 3명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투망 작업 도중 바다로 추락했고, 곧바로 A호 동료 선원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2명이 숨졌다.

40대 선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친 채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다른 50대 선원은 육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도중 사망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배송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가자 W 1,1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9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가자 W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가자 W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성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